

## 외환위기와 무역구조 변화\*

김 종 섭\*\* · 박 태 호\*\*\*

### 논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무역부문이 외환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변화를 무역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무역부문이 외환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96년 반도체의 가격하락, 교역조건 악화, 엔화의 약세 등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무역구조변화에 있어서는 구조변화가 향후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큰 변화 중에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흑자로의 전환, 광물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교역조건 악화,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 원엔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의 악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무역구조, 교역조건, 원엔환율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10

\* 본 연구는 재정경제부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금융센터가 주관하였으며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두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제1저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mail: chongsup@snu.ac.kr

\*\*\* 제2저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mail: thbark@snu.ac.kr

## I. 서 론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재정수지, 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는 건전하였으나 교역조건 악화와 경상수지적자 등 대외부문에만 불균형이 존재하였다. 다른 거시경제지표가 건전하였기 때문에 대외부문 그 중에서도 교역조건의 악화가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교역조건의 악화는 무역구조와 관계가 있다. 세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 IT제품의 수출비중이 높고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은 특수한 무역구조로 인해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러한 무역구조로 인하여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한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외환위기 전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전체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외환위기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조가 점점 더 유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증가가 빨라지자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한국 수출의 양적인 증가가 둔화되는 것뿐 아니라 교역조건의 악화로도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한국수출에 대한 잠식효과와 교역조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외환위기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1996년과 1997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도 한국 수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엔화의 평가절하는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훼손하였을 것이며 이는 수출의 감소라는 거시경제적인 위기로인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률 저하로 인해 미시경제적인 위기로인한 것까지 제공하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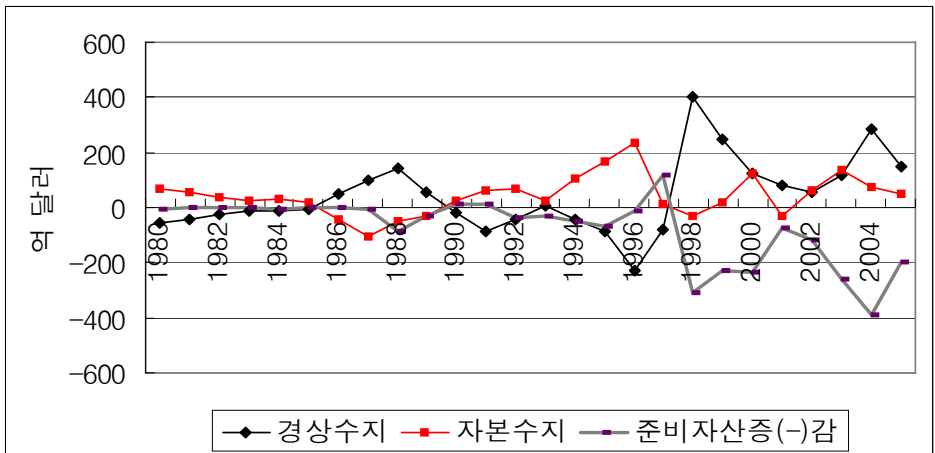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부문이 외환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무역부문 중에서도 본 연구는 경상수지적자, 교역조건, 무역구조, 중국의 부상, 한일 무역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또 이러한 요소들이 외환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얼마나 미쳤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얼마나 변하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 II. 외환위기와 대외부문

외환위기를 설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예측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들 모델에는 실질환율, 무역·경상 수지, 국내신용증가율, 외환보유고, 해외금리, 부실채권규모, 실질GDP증가율, 재정적자, 외채, 교역조건, 금융자유화, 정치불안정성 등 실물부문, 금융부문, 거시부문, 미시부문, 해외부문 등 다방면의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대외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역과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전 가장 우려되었던 대외부문 지표는 경상수지적자와 교역조건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상수지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1997년 이전에는 흑자를 보인 해가 별로 없었다. 엔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 국제금리 인하, 낮은 유가라는 이른바 ‘3저현상’으로 특징 지워지는 1986년~1989년에만 흑자를 보였을 뿐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상수지적자는 주로 민간부문의 투자 증가, 교역조건 악화, 엔화 강세로 인한 원화의 실질평가절상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단기적인 자본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는 큰 증감이 없었다. 경상수지적자와 외채의 누적은 한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외환위기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매년 큰 규모의 경상수지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대규모의 평가절하와 국내수요 감소 등이 경상수지흑자의 주요 이유였다.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내투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며, 외환보유고 증대를 통해 원화의 평가절상을 막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만약 통화당국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화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원화는 훨씬 빨리 그리고 큰 폭으로 평가절상 되었을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오래 전에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 정부가 달러를 흡수하여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든가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미 정부가 적정수준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켜야 한다. 즉, 자본수지적자와 병행할 수밖에 없다. 자본수지에서 순수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또는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Ⅲ.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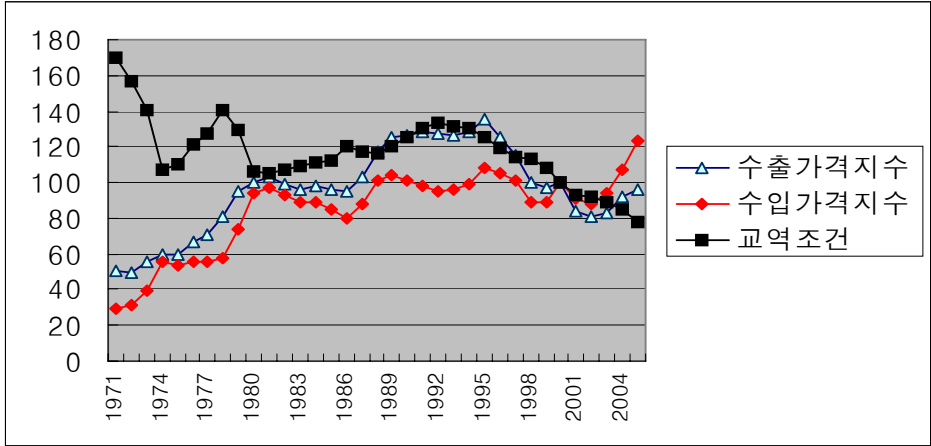
#### 3.1. 한국 교역조건의 추이

한국의 교역조건은 1970년대에는 1,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1974년과 1979년에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유가가 안정되고 석유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교역조건은 1992년까지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역조건은 1993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악화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6년과 1997년에는 교역조건이 각각 5.1%와 3.6%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교역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악화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외환위기 예측모형에서는 교역조건의 악화를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sup>1)</sup>

〈그림 2〉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 (2000=100)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IT제품이며 IT제품의 특징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조건의 악화 중에서 얼마만큼이 IT제품의 가격하락 때문이며, IT제품의 가격하락도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부분과 수요공급의 변화에서 오는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과 사무회계용 기계 등 IT제품이 수출물가지수 산정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둘이 합쳐 37.6%에 이르는 반면 수입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22.9%에 불과하다. 게다가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이 둘의 수출가격지수는 수입가격지수보다 훨씬 급하게 하락하였다. 결국 IT제품 가격의 하락은 1995년과 1997년 사이 교역조건 악화의 거의 100%를 설명한다.

그에 비하여 광산품은 수출물가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물가지수 산정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21.8%에 이른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2004년 이후 달라졌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교역조건이 3.6%와 9.2% 악화되었는데, 광산물의 수입가격 상승만 고려하더라도 교

1) Kaminsky et al(1998) 참조.

역조건이 그 이상으로 악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IT제품의 가격하락은 교역조건악화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표 1〉 IT제품과 광산품의 수출입가격지수 추이와 가중치 (2000=100)

연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사무회계용 기계		광산품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입
1995	236.9	151.1	188.7	150.0	70.8
1996	179.9	139.1	195.9	142.1	78.6
1997	139.8	128.9	166.7	131.9	78.1
1998	115.2	115.5	127.0	122.2	57.7
1999	105.0	101.1	113.1	109.6	69.9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63.2	87.1	87.1	84.2	88.4
2002	54.9	72.0	76.6	75.5	91.1
2003	49.5	68.1	71.6	70.0	101.5
2004	48.3	67.4	70.0	66.6	128.2
2005	40.0	61.3	65.6	60.7	186.3
가중치 (%)	28.4	18.2	9.2	4.7	21.8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IT제품의 가격하락 속도가 낮아진 것은 D램의 비중이 낮아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 D램의 수출물가지수 내의 가중치는 10.8%로서 여러 품목 중에서 제일 높다. D램의 수출가격지수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시간과 기술발전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다면 D램의 수출가격지수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고 어느 정도가 그 수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출가격 변화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D램의 수출가격지수를 시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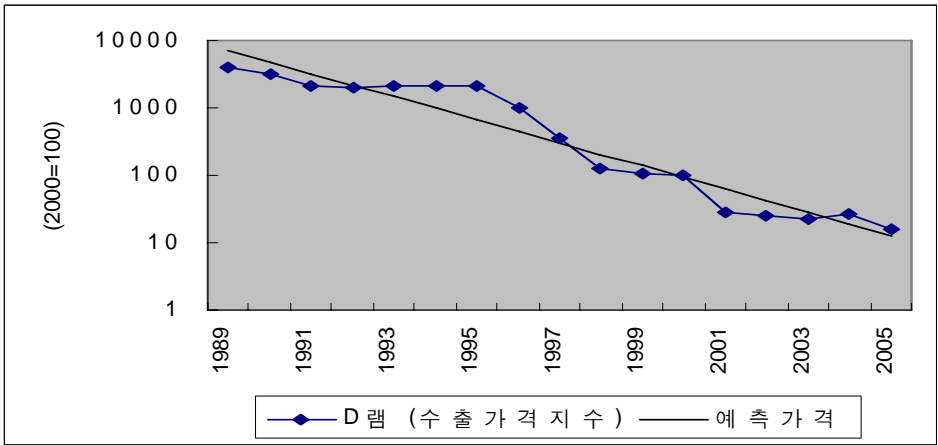
〈표 2〉 D램 가격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 of obs.
ln (P_Dram)	(Constant)	time		
	9.261	-0.394	0.928	17
	(31.892)	(-13.918)		

주) 괄호 안은 t-value.

〈표 2〉에서 시간  $t$ 의 계수가  $-0.394$ 이므로 D램의 수출가격이 매년 약 33%씩 하락한다는 것이 된다. 〈그림 3〉에서 시간에 따른 예측가격과 D램의 실제 수출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면 1996년과 1997년에 D램 가격이 각각 51%와 65% 하락하여 33% 보다 많이 하락하긴 했으나, 이는 그 전에 D램 가격이 추세보다 높았던 것이 조정 받은 것이지 추세를 벗어나서 하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D램의 수출가격



이상에서 본 것처럼 1996년과 1997년 교역조건의 악화는 IT제품의 가격하락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러한 가격하락의 대부분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D램의 경우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추세보다 빠르게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1997년 이전 높게 유지되었던 가격의 조정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97년 D램 가격이 특별히 낮았다고 보기 힘들다.

### 3.2. 수출품목편중과 수출 및 교역조건의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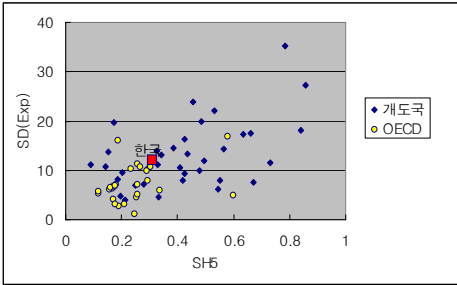
한국의 수출구조는 반도체와 핸드폰 등 몇 개 품목에 대하여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수출이 몇 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액이 몇 개 품목에 따라 변하게 됨으로써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수출물가지수에서 몇 개 품목의 가중치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수출물가지수의 변동성 또한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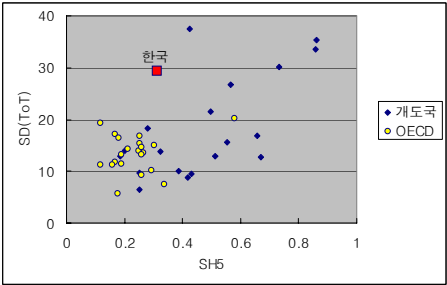
한두 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환율이 평가절상되어 다른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도체와 같이 자본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원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여타 산업은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 전반적인 체감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한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림 4〉은 1995년에서 1999년까지의 총수출에서 SITC 4단위 기준 상위 5개 품목의 비중 SH5와 1995년과 2001년 사이의 수출증가율의 표준편차 SD (Exp)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는 상위 5개 품목의 비중 SH5와 1986년과 2005년 사이의 교역조건의 표준편차 SD (ToT)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sup>2)</sup>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품목의 편중도가 올라갈수록 수출증가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림 4〉 품목편중과 수출변동성 (%)



〈그림 5〉 품목편중과 교역조건변동성 (%)



전체 국가 중에서 보면 한국이 특별히 수출 품목이 편중되어 있다거나 수출 변동성이 큰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교역조건의 변동성은 전체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가와 비교하지 않고 OECD 국가들하고만 비교한다면 한국의 품목편중과 수출변동성 그리고 교역조건변동성은 가장 높은

2) 수출은 UN COMTRADE의 자료를 교역조건은 EIU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 국가로는 이들 자료가 허용하는 모든 국가를 포함하였다.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수출품목편중과 수출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반도체가 총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6년과 1997년에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IT제품 그 중에서도 D램의 수출가격하락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D램의 가격과 반도체 수출, 그리고 총수출을 보여 준다.

<표 3> 반도체 수출과 총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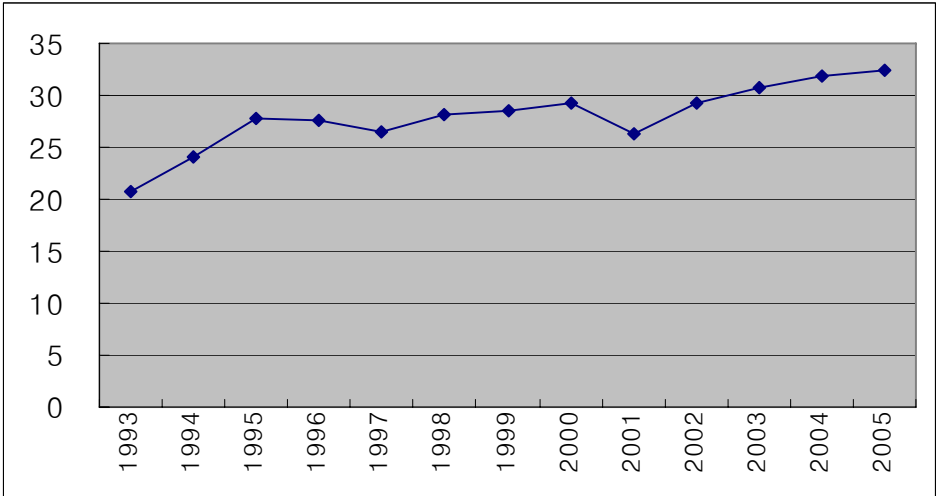
	총 수출 (억 달러)	총 수입 (억 달러)	무역수지 (억 달러)	D램 가격 (2000=100)	반도체수출 (억 달러)	반도체비중 (%)
1989	624	615	9	3943	36	5.7
1990	650	698	-48	3093	41	6.3
1991	719	815	-97	2058	51	7.2
1992	766	818	-51	1985	62	8.1
1993	822	838	-16	2071	64	7.8
1994	960	1023	-63	2163	99	10.3
1995	1251	1351	-101	2087	167	13.4
1996	1297	1503	-206	1017	142	10.9
1997	1362	1446	-85	355	160	11.8
1998	1323	933	390	124	161	12.2
1999	1437	1198	239	106	178	12.4
2000	1723	1605	118	100	246	14.3
2001	1504	1411	93	28	132	8.8
2002	1625	1521	103	26	155	9.5
2003	1938	1788	150	22	183	9.4
2004	2538	2245	294	27	249	9.8
2005	2844	2612	232	16	283	9.9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반도체는 한국 총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반도체 수출가격이 72%나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액은 246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로 114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물론 반도체 가격은 반도체가 포함된 다른 전자제품의 가격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총 수출액도 2000년 1,723억 달러에서 12.7%인 219억 달러 감소하여 1,50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소수의 품목이 총 수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품목 편중도가 외환위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림 6>은 SITC 5단위 기준 한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21%에 머물렀으나 1995년 28%로 상승하였으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27%로 약간 하락하였다. 그 후 서서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29%에 이르렀으나 2001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여파로 다시 26%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32%를 초과하였다. 즉, 한국의 수출품목 편중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상위 10개 품목이 한국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IV. 중국의 무역 확대와 한국의 수출

최근 20년 동안 세계 무역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게는 다른 국가에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수출은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하였다.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동안 1.8%에서 7.4%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대국이 되었다.

수입 면에서도 중국은 세계 총 수입의 6.2%를 차지하여 세계 3위의 수입국이다.

중국의 수출입 확대는 한국의 무역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다. 첫째, 중국의 수입증가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확대를 가능케 한다. 둘째, 중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확대는 중국의 막강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제3국에 대한 한국 수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공급 증가는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제품의 가격에 하락압력을 주어 한국 제품의 수출가격을 떨어뜨리고 한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져 한국 수출의 국가편중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수출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외환위기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중국의 수출확대가 제3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을 잠식시켜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또 중국의 수출품목과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의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부실화되었으며, 이것이 외환위기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 4.1.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확대

중국의 총 수입은 1990년 538억 달러에서 2005년 6602억 달러로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수입이 15년 동안 연평균 18.2% 증가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0년 6억 달러에 이르지 못했던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2005년 619억 달러에 이름으로서 10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연평균 36.5%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한 급속한 수출 증가로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한국 총 수출은 연평균 10.0% 증가할 수 있었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같은 기간에 연평균 8.3%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4〉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중국의 수입		한국의 총 수출		한국의 대중국 수출		한국의 중국 제외 수출	
	백만달러	증가율 (%)	백만달러	증가율 (%)	백만달러	증가율 (%)	백만달러	증가율 (%)
1990	53,809	-9.0	67,812	12.1	585	33.7	67,227	11.9
1991	63,875	18.7	72,372	6.7	1,003	71.4	71,369	6.2
1992	81,871	28.2	77,335	6.9	2,654	164.7	74,681	4.6
1993	103,622	26.6	85,808	11.0	5,151	94.1	80,657	8.0
1994	115,705	11.7	101,352	18.1	6,203	20.4	95,149	18.0
1995	132,163	14.2	131,312	29.6	9,144	47.4	122,168	28.4
1996	138,949	5.1	137,413	4.6	11,377	24.4	126,036	3.2
1997	142,163	2.3	144,023	4.8	13,572	19.3	130,451	3.5
1998	140,385	-1.3	132,703	-7.9	11,944	-12.0	120,759	-7.4
1999	165,718	18.0	143,647	8.2	13,685	14.6	129,962	7.6
2000	224,718	35.6	171,826	19.6	18,455	34.9	153,371	18.0
2001	243,567	8.4	149,836	-12.8	18,190	-1.4	131,646	-14.2
2002	295,440	21.3	161,480	7.8	23,754	30.6	137,726	4.6
2003	412,836	39.7	194,862	20.7	35,110	47.8	159,752	16.0
2004	561,422	36.0	253,740	30.2	49,763	41.7	203,977	27.7
2005	660,218	17.6	284,333	12.1	61,915	24.4	222,418	9.0
1990-2005		18.2		10.0		36.5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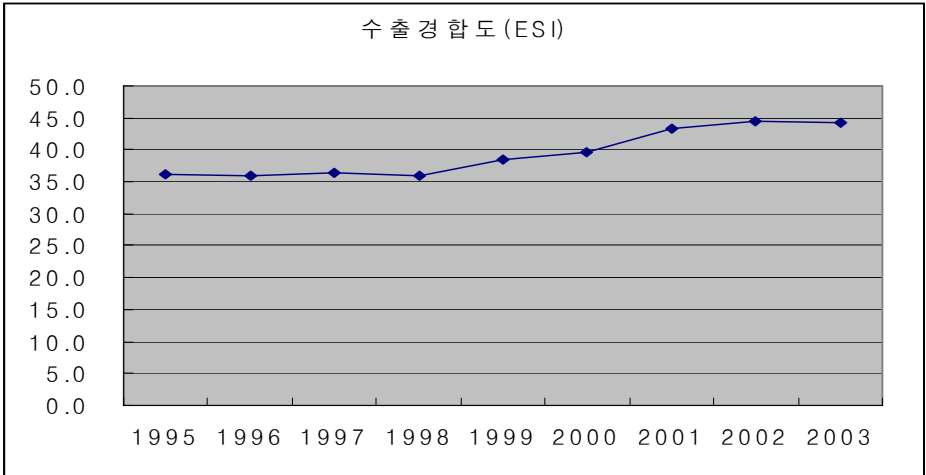
자료: IMF DOTS.

4.2. 제3국에 대한 수출잠식 효과

중국의 수출구조는 점점 더 한국의 수출구조와 비슷해지고 있다. 그이유는 중국이 노동집약적이고 저위기술집약적 제품의 수출뿐 아니라 IT제품 등 고위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수출제품의 영역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경합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02년 사이에 35.9에서 44.6으로 8.7이 상승하였다.<sup>3)</sup> 이러한 수출경합도의 상승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의 IT 제품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3) 수출경합도 (export similarity index: ESI)는 Finger and Kreinin(1979)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a국과 b국이 c국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관계에 있는가를 측정한다. ESI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림 7〉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경합도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여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증가하면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중국 상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도 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995년과 2003년 사이 한국의 상품별 수출증가율  $\Delta X_k$ 을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  $\Delta SX_{ch}$ 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다.<sup>4)</sup>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중국의 한국수출 잠식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 of obs.
$\Delta X_k$	Constant	$\Delta SX_{ch}$		
	1.360	-3.442	0.01	798
	(9.725)	(-2.081)		

주) 괄호 안은 t-value.

$$S(ab, c) = \left\{ \sum_i \text{Min}[X_i(ac), X_i(bc)] \right\} \times 100$$

$X_i(ac)$  는 수출품  $i$  가  $a$ 국의  $c$ 국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X_i(bc)$  는 수출품  $i$  가  $b$ 국의  $c$ 국에 대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SITC 4단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 4) 회귀분석에서 수출품목은 SITC 4 단위 기준으로 하였다. 표본수가 798개인 것은 중국 또는 한국의 수출이 0인 경우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점유율이 1% 상승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3.44% 하락한다.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995년과 2003년 사이에 3.2%에서 6.9%로 증가하였으므로 중국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8년 동안 12.7% 잠식당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매년 1.5%의 잠식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가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긴 하지만 중국의 수출 잠식효과를 감안하면 수출증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4.3. 수출입가격에 주는 영향<sup>5)</sup>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빠른 무역확대로 인해 2005년에는 중국이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이르렀으며,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이르렀다. 개별품목에 있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가격을 외생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의 수출입 확대는 국제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입확대가 어느 정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영향을 분석하려면 먼저 국제가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가격에 대한 자료로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미국의 수입수출가격지수를 사용하려고 한다.<sup>6)</sup> 물론 미국의 수입수출가격이 완전하게 국제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시장의 규모와 무역장벽을 고려할 때 가장 근접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150여 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입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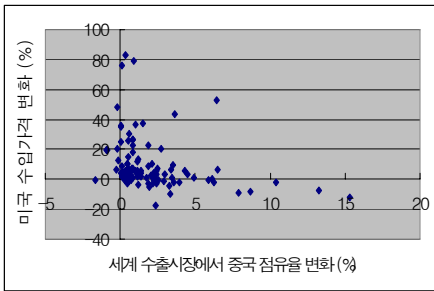
중국의 수출확대로 인해 세계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 세계시장에서는 공급증가로 인해 해당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석 대상인 150개 항목 중에서 중국수출의 세계시장 점

5) 본 절의 방법론은 김종섭(2005)를 주로 원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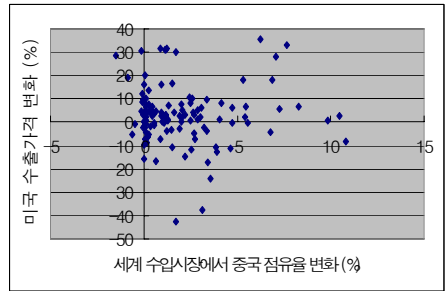
6) 품목의 구분은 SITC 1, 2, 3 단위를 혼용해서 쓰고 있으며 SITC 3단위 품목이 SITC 2단위 품목에 다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수출가격에 대한 자료가 있는 품목이 수입가격에 대한 자료가 있는 품목과 다른 경우도 많다.

유율이 5%가 넘는 항목은 1999년 43개에서 2003년에는 67개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세계시장 점유율이 5% 이상 증가한 항목도 23개에 달하였다.<sup>7)</sup> 〈그림 8〉은 세계수출에서 중국비중의 변화와 미국의 수입가격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sup>8)</sup> 세계수출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제품일수록 미국의 수입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8〉 중국의 수출증가와 국제가격



〈그림 9〉 중국의 수입확대와 국제가격



반대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품목이 가격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중국의 수입은 특히 경제발전을 위한 원자재, 부품, 소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1999년 세계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가 넘는 품목은 24개였으나, 2003년에는 62개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 증가한 항목도 17개에 달하였다. 국제가격의 상승은 미국의 수출가격의 상승에 반영된다. 따라서 중국이 세계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미국의 수출가격변화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그림 9〉에서 보여지고 있으나 그 관계가 〈그림 8〉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미국의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을 평균한 값의 1999년과 2003년 사이 변화율을 중국의 세계 수출과 수입 비중변화( $\Delta SXch$ ,  $\Delta SMch$ )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하면 〈표 6〉과 같다. 회귀식에는 IT제품의 가변수인  $D\_IT$ 를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T제품은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데, 중국

7) UN COMTRADE Dataset 사용.

8) 세계시장에서 중국 수출입 비중의 변화는 2000년 2003년 사이의 변화이며, 미국 수출입가격의 변화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의 변화이다.

의 수출품 중 IT제품의 수출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IT제품의 가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효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중국의 무역확대가 국제가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 of obs.
Δ미수출입가격	Constant	ΔSXch	ΔSMch	D_IT		
	9.159*	-1.309*	0.753	-10.561*	0.183	143
	(4.953)	(-2.928)	(1.466)	(-2.060)		

주) 괄호 안은 t-value.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상승하면 미국 수출입가격으로 나타나는 국제가격은 1.31% 하락한다. 반대로 세계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상승하면 국제가격은 0.75% 상승한다.

〈표 7〉은 회귀결과에서 도출된 각 제품별 가격변화에 한국 수출입의 제품구조를 대입하여 중국의 수출입증가가 한국의 수출입가격에 얼마큼의 영향을 주는지 계산한 것이다. 한국의 수출입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중국수출의 증가에 따라 국제가격과 한국 수출가격이 하락하여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이 입는 피해는 총 수출의 5.03%에 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 중국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제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한국의 수출가격 상승으로 상쇄된다. 이러한 효과가 2.32%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수출가격이 2.71% 하락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표 7〉 중국이 국제가격에 대한 영향을 통해 한국에 주는 영향

	중국수출증가에 따른 가격하락효과	중국수입증가에 따른 가격상승효과	총효과
한국의 수출가격	-5.03%	2.32%	-2.71%
한국의 수입가격	-3.03%	2.26%	-0.77%

한국의 수입은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른 3.03%의 가격하락으로 혜택을 보게 되지만 중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제가격상승 때문에 수입가격이 2.26% 상승하는 피



해도 입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입가격은 0.77% 하락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중국의 무역확대로 교역조건은 1.94% 악화된다.

교역조건의 악화가 꼭 수출감소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수출물량이 증가하면 수출액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감소효과가 작더라도 수출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미시적인 면에서 경제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에서도 교역조건의 악화가 미시적인 위기 요인을 제공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입 확대가 한국의 교역조건에 미친 영향은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1.94%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한 가지 요소가 그리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 4.4. 국가편중도

한국 대상국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중국의 비중이 급속도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0년 이전에는 전체의 1%도 안 될 정도로 미미했다. 그러나 1991년 1.4%를 기록한 후 급속도로 상승하여 2005년에는 21.8%에 이르렀다. 홍콩을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6% 가량 상승한다.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중국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세계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8%에서 2005년에 6.2%로 증가하였다. 둘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다른 국가보다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의 수입시장 규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규모와 성장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십분 활용하여 한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편중도가 높아지면 중국 경제에 이상이 생겼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중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럴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향후 위안화가 평가절하 된다면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는 일본의 엔화가 평가절하 되었을 때보다도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표 8〉 한국 수출의 대상국별 비중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	일본	중국 <sup>1)</sup>	미·일·중	미국	일본	중국 <sup>1)</sup>	미·일·중
1991	0.258	0.172	0.014	0.444	0.140	0.065	0.018	0.223
1992	0.236	0.151	0.035	0.422	0.142	0.060	0.021	0.223
1993	0.221	0.141	0.063	0.424	0.159	0.064	0.027	0.250
1994	0.214	0.141	0.065	0.420	0.160	0.064	0.027	0.250
1995	0.193	0.136	0.073	0.402	0.150	0.065	0.026	0.241
1996	0.167	0.122	0.088	0.376	0.152	0.065	0.026	0.242
1997	0.159	0.108	0.100	0.367	0.161	0.061	0.025	0.246
1998	0.172	0.092	0.090	0.355	0.171	0.051	0.025	0.247
1999	0.205	0.110	0.095	0.411	0.180	0.053	0.028	0.262
2000	0.218	0.119	0.107	0.444	0.188	0.058	0.034	0.280
2001	0.207	0.110	0.121	0.438	0.185	0.055	0.038	0.277
2002	0.202	0.093	0.146	0.441	0.181	0.051	0.044	0.276
2003	0.177	0.089	0.181	0.447	0.168	0.049	0.053	0.271
2004	0.169	0.085	0.196	0.450	0.161	0.048	0.059	0.268
2005	0.145	0.084	0.218	0.448	0.162	0.048	0.062	0.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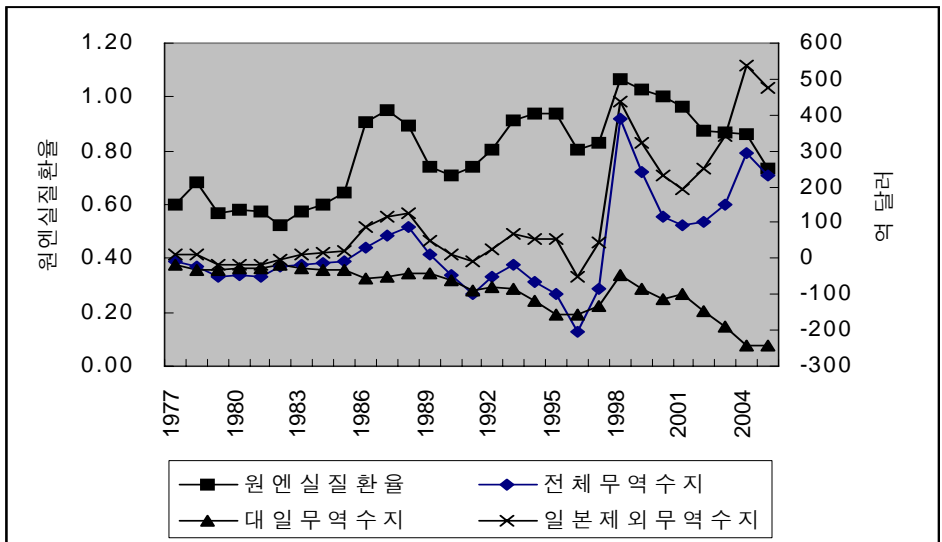
주 1) 홍콩 제외.  
자료: IMF DOTS.

중국이 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 경제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ASEAN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증가는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차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은 일차산품 가격 상승과 수출증가로 인해 풍부해진 외환으로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수출을 증가시킬 좋은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일차산품 가격상승이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로 인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 국가들도 중국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중국 위험을 분산시킬 효과적인 방법은 별로 없지만 그나마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가 중국 위험을 분산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판단된다.

## V. 원엔 환율과 한국 무역

1997년의 외환위기는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한국 수출이 경쟁력을 잃어 경상수지적자가 증가한 데 그 한 원인이 있다. 1995년 94에 머물던 엔달러 환율은 1996년에는 108.8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엔화의 약세 기조는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원화는 엔화에 대하여 평가절상 되었으며 1996년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율은 14%에 이르렀다.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적자는 1995년 101억 달러에서 1996년 206억 달러로 105억 달러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무역수지적자 증가는 대일무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일본을 제외한 제3국과의 무역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림 10> 원엔실질환율(2000=100)과 무역수지



원엔환율이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보다 제3국에 대한 무역수지에 더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본이 한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 17.2%에서 계속 하락하여 1997년에는 10.8%에 이르렀으며 2005년에는 더욱 하락하여 8.4%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본이 한국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약 10% 높게 유

지되었으며, 따라서 대 일본 무역적자의 크기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영향을 받아왔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부품·소재나 기계·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엔화에 대해 평가절하를 하더라도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탄력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대 일본 무역수지는 원엔실질환율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한국 제품이 제3국에서 일본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원엔실질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원엔환율의 하락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소재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한국 기업의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효과는 제3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출 기업의 채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 때문에 원엔실질환율이 평가절상하면 제3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엔환율과 무역수지와 이러한 관계는 2001년 이후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98년과 2001년 사이에는 원엔 실질환율의 평가절상에 따라 제3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악화되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원엔 실질환율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개선되고 있다. 오히려 그 동안 원엔환율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대일 무역수지가 외환위기 이후에 원엔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수출구조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사이의 전체적인 수출경합도는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42.87에서 50.20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이 원엔환율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표 9>는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상위 9개 수출품목의 수출경합도를 따로 보여주고 있다.<sup>9)</sup> 먼저 가장 큰 수출품목인 전기기기과 그 부분품(HS85)은 일본과의 업종내 수출경합도가 55.03에서 52.50으로 하락하였다.<sup>10)</sup> 한국과 일본의 전체 수출경합도에 대한 기여도 14.59에서 12.21로 하락하였다.<sup>11)</sup> 이렇듯 전기전자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가 줄어들고 있

9) 이 9개 품목은 한국 총 수출의 79%를 차지함.

10) HS 6단위 기준.

11) 업종 내 수출경합도는 같은 업종 내에서 상품 구성이 얼마나 경쟁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는 이유는 반도체의 경우 한국은 D램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일본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핸드폰의 경우 한국의 경쟁 상대가 노키아, 모토로라 등 일본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9〉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경합도(ESI)

HS Code	품목	부문별 ESI		전체 ESI에 대한 기여분	
		1995	2005	1995	2005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55.03	52.50	14.59	12.21
84	기계류 및 부분품	52.53	53.86	7.40	9.09
87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9.17	66.77	5.79	11.79
89	선박	91.26	73.90	2.41	2.03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80.54	79.92	0.47	0.64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4.93	52.86	1.57	2.04
72	철강	53.64	54.72	1.86	2.42
90	정밀기기	45.80	34.95	0.96	1.72
29	유기화합품	44.59	50.21	1.11	1.70
총 수출		42.87	50.20	42.87	50.20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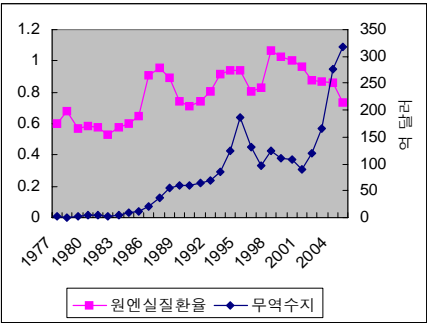
선박의 경우도 업종내 수출경합도가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91.26에서 73.90으로 하락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선박 업종내 수출경합도는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 일본의 선박수출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전체 수출경합도에 대한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게다가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2.41에서 2.03으로 하락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 하락으로 인하여 전기전자 부문과 선박 부문의 무역수지는 원엔실질환율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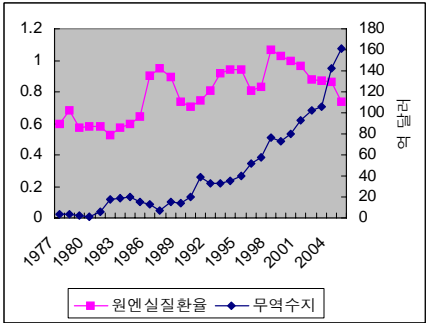
이 수치는 동종 업종이 한·일 간에 얼마나 경쟁적인가를 보여주는 데는 적합하지만, 양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 양국 간의 전체적인 경쟁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이 전체 수출경합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부문별 ESI는 해당 부문의 수출액만으로 계산한 것이며, 전체 ESI에 대한 기여분은 전체 수출액으로 ESI를 계산한 후 해당 업종이 ESI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계산한 것이다.

전기전자 부문 무역수지의 경우 2001년까지는 원엔실질환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원엔실질환율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의 경우 한국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재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선박 부문의 무역수지는 <그림 12>에서 보듯이 원엔실질환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그림 11> 원엔환율과 무역수지: 전기전자



<그림 12> 원엔환율과 무역수지: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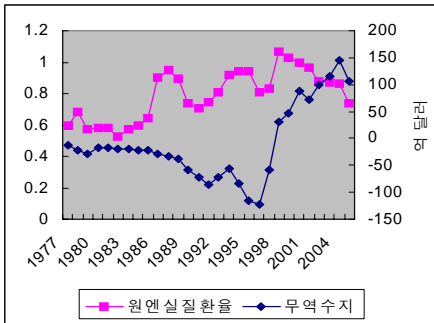
기계와 자동차 부문의 경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출경합도가 상승하였다. 기계 부문은 한·일간 업종내 수출경합도가 52.53에서 53.86으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수출경합도에 대한 기여도 7.40에서 9.09로 상승하였다. 자동차 부문은 업종내 수출경합도가 59.17에서 66.77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ESI에 대한 기여도 5.79에서 11.79로 상승하였다. 사실 한·일간 전체 수출경합도가 상승한 원인의 대부분은 자동차 부문이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높아진 수출경합도로 인해 이 두 부문의 무역수지는 원엔실질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기계 부문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상승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 146억 달러에 불과했던 기계 부문 수출은 2005년 386억 달러로 164%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동안에 57억 달러 적자에서 106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sup>12)</sup>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원엔환율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2000년 이후에는 원엔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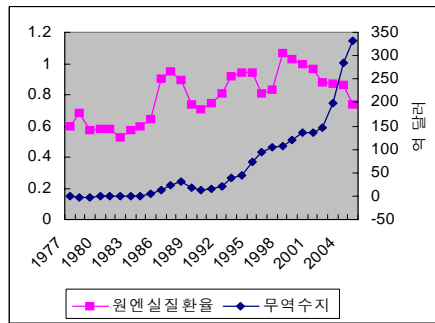
12) 총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에 108% 증가하였음.

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와 무역수지 개선은 지속되었다. 이것은 경쟁력 상승효과가 원엔실질환율의 변동 효과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높아진 수출경합도로 인해 원엔환율이 기계부문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원엔환율과 무역수지: 기계



〈그림 14〉 원엔환율과 무역수지: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의 경쟁력 제고가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1997년 123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005년에는 375억 달러로 205%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무역수지흑자는 104억 달러에서 33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과 무역수지흑자의 증가는 최근 원엔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기계부문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원엔환율이 수출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로 인하여 원엔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전자 부문과 선박 부문 등 한국의 몇 개 주력 업종의 대 일본 경합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자동차 등 그동안 일본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왔던 부문들은 앞으로 원엔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 무역수지가 원엔환율에 받는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역부문이 외환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변화를 무역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역부문이 외환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1996년의 반도체 가격 하락, 교역조건의 악화, 엔화의 약세 등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매년 큰 규모의 경상수지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교역조건 악화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기부터 계속된 교역조건의 악화 추세는 IT 부분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IT제품의 가격하락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주로 에너지 광물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서, IT제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는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역조건의 추세적인 악화보다는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경제에는 더 큰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OECD 국가 중 한국의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품목의 편중은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한국의 수출품목 편중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이다.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약 9%에서 2005년에는 21.8%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 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위험을 분산시키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매년 1.7% 기여하였으나 제3국에서 매년 1.5%의 잠식 효과도 가져왔다. 수출 잠식효과보다는 수출증대 효과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수출입 확대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의 교역조건을 1.94%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로 인하여 원엔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 전자 부문과 선박 부문 등 한국의 몇 개 주력 업종의 대 일본 경합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자동차 등 그동안 일본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어 왔던 부문들은 앞으로 원엔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 무역수지가 원엔환율에 받는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 ■ 참 고 문 헌

1. 김재영,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의 환율동향과 환율정책에 대한 실증적 재고,”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2. 김종섭, “BRICs의 무역확대가 세계수출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1호, 2005년 5월, 한국국제통상학회, 2005, pp. 1-18.
3. 박원암·최공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1999.
4. Batista, Jorge Chami, and João Pedro Wagner de Acevedo, “NAFTA and the loss of U.S. Market Share by Brazil: 1992-2001,” CEPAL Review, 78, 2002.
5. Finger, J. M. and M. E. Kreinin,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ssible Uses,” *The Economic Journal*, 89, 1979, pp. 905-913.
6. Kaminsky, G., S. Lizondo, and C. M. Reinhart, “Leading Indicators of Currency Crisis,” *IMF Staff Papers*, Vol. 45, No. 1, IMF, 1998.

## Changes in Trade Struc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Chong-Sup Kim\* · Taeho Bar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at the trade sector had on the currency crisis, an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after the cri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trade sector did not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currency crisis. The drop of semiconductor prices, the deterioration of the terms of trade, and the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in 1996,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but the effect was not so strong as to provoke a currency crisis. The changes in trade struc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risk of another currency crisis. The main changes analyzed were those in current accounts, terms of trade, China's share in Korea's trade and the influence of the won-yen exchange rate.

**Key Words:** Trade structure, terms of trade, won-yen exchange rate

---

\* Professor,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Graduate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